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좀 이상한 프로젝트였다. 출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였다.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KTX가 서울과 부산을 두 시간 남짓한 시간에 오가는 시대에 한가롭게 배를 타고 전국을 유람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유권자들은 이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지만, 그전 그의 전공인 경제를 살려 달라는 주문이었을 뿐, 대운하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국민의 80%는 대운하 사업을 반대했다.

대통령이 모든 공약을 다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특히 대운하처럼 시대착오적

정치 보복과 적폐 청산 사이

인 사업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이름을 '4대강 사업'이라고 바꾼 뒤 사업을 재추진한다. 치밀하게 전개된 여론전 때문인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율은 이전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 사업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졌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추진됐고, 그 뒷배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밀정한 강을 보로 막아 놓으니 유속이 느려졌고, 요즘 우리나라에 부쩍 심해진 가뭄까지 겹치는 바람에 곳곳에서 녹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무리 찾아봐도 4대강 사업을 해서 좋아진 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쯤 되면 이명박이 이런 사업을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추진했는지 궁금해진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2013년 1월, 그간 이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감사원은 돌연 입장을 바꿔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양심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정권

의 서술이 무서워 거짓말을 해 왔다는 얘기,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같은 뿌리인 박근혜 정부는 이 사업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최소 실계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업의 조사는 영영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순실계이트가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다 준 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측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 이전 대통령은 진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허를 끝끝 차고 헛웃음을 지었다'는 게 측근의 전언인데, 이런 완전범죄라고 생각한 게 탄로 났을 때 보이는 반응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 보복 운운할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체계재단이나 이명박 측근의 비리를 조사한다면 그런 비판이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4대강은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큰 적폐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이를 감시할 권력 기구들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여기에 부화뇌동한 이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을 잡아 크게 한탕 하자'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너도나도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한 가지 씁쓸한 점은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너무 큰 힘을 갖는 것 같아서다. 4대강 감사가 시작된 것도 대통령의 지시였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추후 대통령이 바뀌면 열렸던 보기가 다시 닫히고, 그 1만 명이 다시 비정규직이 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이런 면에서 위험하다.

만일 검찰과 공정위, 감사원 등의 국가 기구들이 소신껏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4대강은 물론이고 최순실계이트도 사전에 막았을지도 모른다. 현 대통령이 이해할 일은 그래서 이들 기구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익숙해진 이들이 과연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종교칼럼



장현 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다운이 엄마 너무도 절절합니다. 이제 곧 우리 다운이를 만날 수 있네요.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3월23일 오전 8:56)

“에 목사님 좋은 날씨와 사람 먼저 찾았다고 외쳐주세요.”(3월23일 오전 8:59)

은화 엄마에게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지요. 은화엄마는 전화 하시고 아무런 이야기 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요. 은화 엄마, 다운이 엄마! 이날이 바로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목포 신항으로 가는 날이지요. 얼마나 가슴 설렘으로 하얀발을 보냈을까요.

벚꽃 피는 계절, 금요일 돌아오겠다며 수학여행 갔던 딸들이지요. 하늘에 별과 바람도 될 수 없지요. 세월호 속에 아직도 내 가족이 있다는 것에 역사가 무너지는 시간을 보냈지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자녀를 찾아 유가족이 되어 떠날 때 마지막에 남을까 두려워 했다는 이야기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도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울 딸 내 곁까지 널 어쩌지? 널 언제

두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데리고 오니? 하루라도 빨리 너, 엄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지내? 엄마 숨쉬기도 힘들어, 참 힘들어 하지만 울 딸이 더 힘들어서 엄마 할 말이 없네. 빨리 와 사랑해.”(은화 엄마)

은화 엄마, 다운이 엄마! 자주 찾아 뵈지도 못하는 가운데 엄지엄마는 편지를 써 봅니다. 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 2016년 3월1일부터 세월호 기억과 약속의 305일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카톡방에 이들과 내용 적어서 함께 기억 했습니다. 저는 손바닥 편지로 매일 기억하면서 편지 썼지요. 세월호 기억과 약속의 305일(8일째) 미수습자 조은화 님(2-1) 투정도 하지 않고 착한 은화, 공부도 잘하는 은화, 이를 만 볼러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엄마, 은화가 옆에만 있으면 소원이 없었습니다.

은화 엄마는 이야기 합니다. “우선 현장의 안전입니다. 철저한 유실방지를 통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가족을 찾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화 좀 찾아 주세요.”

은화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날 오늘도 은화 엄마와 아빠는 은화를 생각하며 눈물로 시작합니다. 조은화 이름 호명합니다. “어서 돌아오렴”(2016년 3월8일 화요일 692일째)

손바닥 편지 글입니다. “미수습자 아홉 명 가운데 은화와 다운이는 누구보다 기억을 하고 있단다. 그만큼 엄마가 애타게

기다리며 동분서주하고 있어. 은화가 엄마 아빠의 보타지는 심정을 잘 알고 있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은화가 엄마 아빠 곁으로 돌아오길 기도한다. 주님께 서 은화를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은화를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 본다. 은화야!”

세월호 기억과 약속의 305일(9일째). 미수습자 하다운(2-2)님. 엄마를 많이 닮은 다운이다.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야. 교우 관계가 깊은 다운이다.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다. 반에서 서기 일을 맡아 꼼꼼하다. 깜빡 반려전 무척 좋아한다. 다운이가 수학여행기가 일주일 전 좀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엄마 나 행복해”라고 말했다. 믿음의 딸 다운이다. 엄마와 아빠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어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자. 다운야 많이 보고 싶다.

하다운 님 손바닥 편지 “꽃샘추위라고 하듯이 날씨가 많이 춥다. 팽목항에서 엄마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것 있어. 엄마 손 차갑고 기운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어. 다운야 얼마 있지 않으면 700일이 다 되어 간다. 어서 캄바와 엄마 아빠 친구 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기도할게.”(2016년 3월 9일 다운 엄마가)

다운이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기에 용돈을 달라거나 무언가 사달라고 조르는 편이 없고는 착한 딸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다. 애교 많은 다운이다. 성

격이 내성적이어서 수확여행 안 가려고 했던 딸을 친구도 사귀라고 보낸 것이 가슴에 못이다.

은화 엄마 다운이 엄마! 팽목항에서 정운동에서 내 딸을 찾아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한 것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두 돌아오길 하루하루 간절함이지요. 두 남매처럼 서로 다독거리면서 울고 웃다가 버거운 세월을 보내고 있군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딸의 소식 들렸지요. 오로지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 없는 엄마의 천지간에 흥건한 슬픔과 아픔을 등 뒤에 감춰진 고통이지요.

다들 떠나고 홀로 남아 슬픔과 고통을 싸워야 하는 두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두 눈에 눈물 적셔가면서 선체 인양 하는 것은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셨습니다. 저는 곁에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용서 해주세요. 이제 아홉분 다 모시고 하늘의 바람과 별이 된 은화와 다운이 손잡고 안산 집으로 가시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우리교회 주보에 아홉분 명단을 3년 동안 기재해서 매주일 함께 기도했지요. 은화 엄마 아빠, 다운이 엄마 아빠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함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기 고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미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론조사도 예외는 아닌데 이번 19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1위부터 5위까지 순위와 함께 각 후보별 실제 득표율이 조사결과의 오차 한계(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매우 정확한 예측(조사결과와 실제 득표율의 차이는 0.3~0.7%포인트였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나면 여론조사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답(?)과 예측치를 맞춰볼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20대 총선 예측 실패,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예측 실패, 미국 대선의 트럼프 당선 예측 실패로 인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다

여론조사의 미래도 장밋빛?

선거 기간 동안 몇 개의 여론조사에 대한 과대로 부과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해 각종 서 캠프에서나 후보자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결과 중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여 진짜 여론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SNS 등을 통해 각종 거짓 정보가 쏟아졌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을 얼마나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출구 조사는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까지 모두 오차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정확했던 적은 처음이다. 더군다나 대선 사상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26.1%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맡았던 조사회사들은 매우 고민이 컸다고 한다.

조사 회사들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질문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초반 후보자별 경력을 나열할 때는 글자 수까지 일정하게 맞춘다. 또한, 기호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후보자를 보기로 불러줄 때 특정 후보가 옆에만 나오거나 뒤에만 나오지 않도록 순서를 순환하여 불러주기도 한다. 출구조사

시 조사원들이 쓰는 모자 역시 특정 정당 이 떠오르지 않도록 늘 흰색을 쓴다.

결과 분석시에도 응답의 단순 집계가 아닌 원래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주어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사 후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대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선거를 통해 각종 거짓 정보가 쏟아졌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출구조사가 아닌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도 실제 득표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조사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조사가 정당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안심

번호가 허용되었고, 기존 선거 때는 유선 전화 활용 비중이 컸지만 대부분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활용한 휴대전화 활용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보통 전국 단위의 선거인 대선은 모집단이 1개이고 예측해야 하는 수치가 1가지라 이른바 ‘축집계’ 예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모집단의 수가 많고 하나의 모집단의 규모는 작으며 예측해야 하는 수치도 다양하여 예측이 빛나기는 경우도 많다. 예측이 빛나기게 되면 지금의 여론조사에 대한 장밋빛 반응이 불신, 평가절하, 비난 등으로 바뀌는 것 역시 한 순간일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사진 찍어 둔 것과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경이 바뀌듯이 여론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추세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장밋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社說

호재 맞은 ‘광주형 일자리’ 구축 앞당겨야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 전국적 확산’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데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결재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새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엇그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특별법으로 ‘일자리 나눔 확산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구현될 그간 국가산단의 노사 상생 산업단지 특구 지정을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경우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지원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

순환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한 모델이다.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과 나주 혁신도시를 활용한 에너지 밸리 조성 등의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게 광주시의 복안이다. 새 정부 들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이 호재를 맞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광주시는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협력 문제나 노·사를 포함한 사회 각층의 대타협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는 무엇보다 이번에 신설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과제를 돌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

국정기획위 호남 고려해 국정과제 선정을

옛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본격 가동됐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대선 공약을 나라 살림과 우선순위에 맞게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공약과 중점 과제를 정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던 5당의 공동 공약 중 법제화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예산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100여 개 과제로 압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의 결과물이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이란 의미에서 국정기획위의 활동은 새 정부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 입장에서는 국정기획위가 만들 5개년 계획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역발전 계획의 청사진이 된다 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치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유해해 지방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지방 우대가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 지역 균형 발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 동안 호남은 차별과 소외의 땅이었다. 인사는 물론 정책과 예산에서 소외를 받아 지역 발전의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다.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떠나서 돌아올 줄 모르는 서러운 땅이 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호남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해 국정과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가지 호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모두 소중한 약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 정부에 거는 호남 발전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부분의 사상이나 철학은 생겨난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학자들이 주변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본 뒤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사상 또는 철학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나 ‘상진벽해’(桑田碧海) 같은 말들이 상징하듯 세상은 변해 가는 것이고, 주류 사상이나 철학도 세월 따라 바뀌거나 업그레이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목 감독이나 김 9단의 평가는 노자 도덕 경에 나오는 ‘상선약로’이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특정 사상이나 철학이 다루는 범위가 주제가 비교적 뚜렷하고 구체적이지만, 동양의 그것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은 디지털형 그리고 동양은 아날로그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둑처럼 수천 년간 이어 온 놀이 혹은 보드게임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23일부터 중국 저장성 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바둑의 미래 서밋’에서 인공지능을 알파고 중국 랭

상선약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목 감독이나 김 9단의 평가는 노자 도덕 경에 나오는 ‘상선약로’이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특정 사상이나 철학이 다루는 범위가 주제가 비교적 뚜렷하고 구체적이지만, 동양의 그것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은 디지털형 그리고 동양은 아날로그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둑처럼 수천 년간 이어 온 놀이 혹은 보드게임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23일부터 중국 저장성 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바둑의 미래 서밋’에서 인공지능을 알파고 중국 랭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address, and subscription rate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